



- 일 시 : 2021. 11. 26.(금), 14:00
- 장 소 :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 좌 장 : 김복만 의원

금산 약초시장 및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의정토론회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의정토론회 진행 안내

토론회 개요

- 주 제 : 금산 약초시장 및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 일 시 : 2021. 11. 26.(금), 14:00 ~
- 장 소 :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 좌 장 : 김 복 만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토론회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 등 록 (10분) : 13:50 ~ 14:00		
☑ 개 회 식 (20분)		
14:00~14:05 (5분)	개 회 및 국 민 의 례	수석전문위원
14:05~14:20 (15분)	참석자 소개, 개회사	김복만 의원
☑ 토 론 회 (100분)		
14:20~14:40 (20분)	주 제 발 표 (금산 약초시장 등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방안)	김영수 원장
14:40~15:40 (60분)	지 정 토 론	토론자 6명 (각 8분 내외)
15:40~16:00 (20분)	자 유 토 론	토론회 참여자 전체
☑ 정 리 및 폐 회 (5분) : 16:00 ~ 16:05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복만 의원입니다.

입동(立冬)과 소설(小雪)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시기에, 「금산 약초시장 및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인삼약초산업의 관계자들을 모시고 의정토론회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발표를 해주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김영수 원장님’, 그리고 지정토론자로 와주신 ‘문정우 금산군수님’,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정낙춘 국장님’,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김현호 소장님’, ‘백제금산인삼농협 강상묵 조합장님’, ‘금산국제인삼시장 정승철 조합장님’ 과 ‘우신산업주식회사 황광보 대표이사님’ 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금산 인삼약초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금산군민과 의원님들, 관련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정토론회는 ‘인삼과 약초의 고장 금산’의 「약초시장 및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생산자·판매자·관계 전문가 등 인삼약초산업의 주체들과 의견을 나누고, 더 나은 방안을 찾는 자리입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식품의 대명사인 인삼약초 관련 제품의 소비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 약초시장 등의 경쟁력 저하로 금산 인삼약초산업은 절체절명에 처해 있습니다.

금산인삼의 명성에 걸맞게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5호’, ‘유엔식량 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라는 타이틀이 붙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용담댐 홍수 피해 등의 악재로 금산인삼의 소비가 둔화되어 금산군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장날이면 꼭 차 있던 인삼약초시장의 장터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속된 말로 절단이 났습니다. 금산 출신 도의원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기에 ‘두고만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결 및 발전방안을 찾고자 이번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생산·가공·소비·유통·제도적 측면에서 ‘인삼약초 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과 정책대안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발굴된 방안과 정책들은 금산 약초시장과 인삼약초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해 주신 금산 군수님을 비롯한 전문가와 금산군민 등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최적의 정책 대안과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분들과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11월 26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복만

목 차

1부 주제 발표

- 금산 약초시장 등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3
- 김영수 원장(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2부 지정 토론

- 금산 인삼약초산업 기본 틀을 바꿔야 23
- 문정우 군수 (금산군)
- 금산 인삼 유통 활성화 방안 31
- 정낙춘 국장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 금산 인삼 약초 가치 Up Grade를 위한 방안 및 R&D 추진방향 37
- 김현호 소장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 인삼 소비 촉진에 대한 제언 45
- 강상목 조합장 (백제금산인삼농협)
- 인삼약초시장 유통 안전성과 법률문제 등에 대한 고찰 .. 51
- 정승철 조합장 (금산국제인삼시장조합)
- 인삼산업 활성화 방안 - 수출·가공·제도개선 등 57
- 황광보 대표이사 (우신산업주식회사)

주제발표



금산 약초시장 등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김영수 원장

금산 약초시장 등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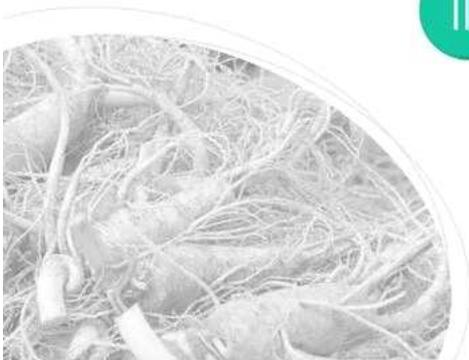
2021. 11. 26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목 차

- I 금산 인삼산업 현황 진단
- II 금산 인삼산업 발전대책
- III 삼업혁신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



I 금산 인삼산업 현황 진단

1. 금산 인삼산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생산부문

■ 2012년 이후 2017년까지 감소 후 증가 (관내외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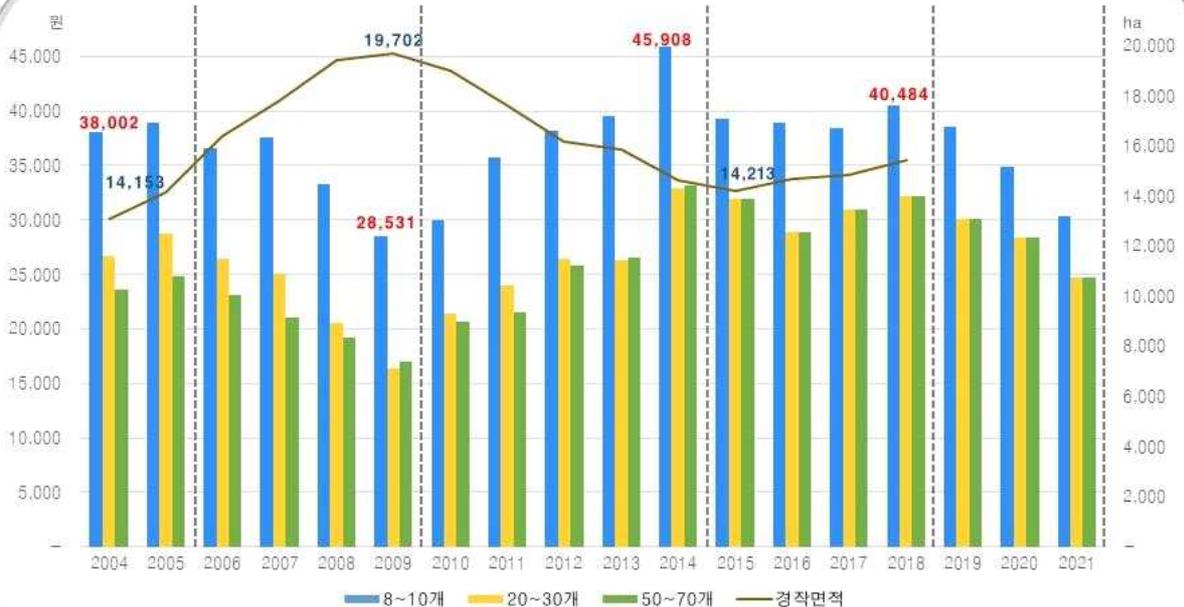
<2019년 기준 전국대비 점유율>

	전국	금산 (관내외)	금산 (관내)
재배면적 (ha)	14,770 (100%)	2,570 (17.4%)	1,610 (10.9%)
생산량 (톤)	19,582 (100%)	5,580 (28.5%)	3,001 (15.3%)

자료출처: 금산군

I 금산 인삼산업 현황 진단

1. 금산 인삼산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생산부문



I 금산 인삼산업 현황 진단

1. 금산 인삼산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생산부문

■ 소득 분석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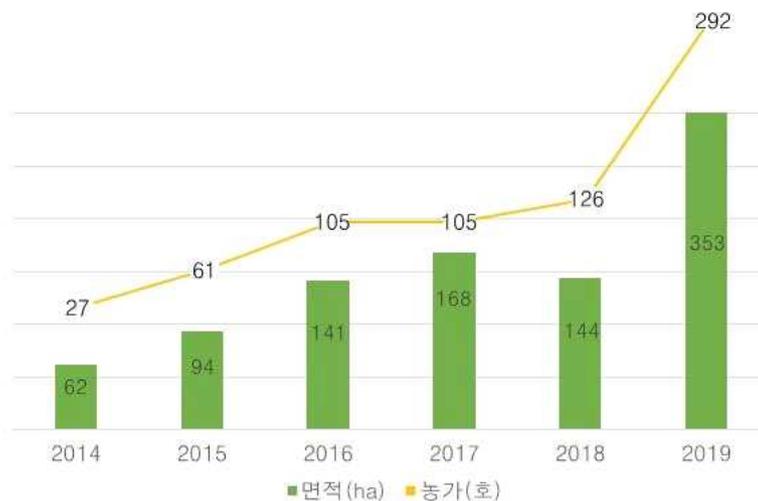
구분	채굴 면적 (ha)	생산량 (톤)		조수입 (백만원)		소득 (백만원)	
		총량	10a당	총액	10a당	총액	10a당
관내	629.2	3001.4	0.477	57.479	9.135	34.487	5.481
관외	235.2	2579	1.096	23.129	9.834	13.877	5.900

자료출처: 농촌진흥청

I 금산 인삼산업 현황 진단

1. 금산 인삼산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생산부문

■ GAP인삼 인증 현황



I 금산 인삼산업 현황 진단

1. 금산 인삼산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가공부문

■ 영세업체 중심의 품질 및 안전성 취약과 품목 편중

-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영세하여 시설투자 취약

식품제조가공업은 감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증가



품목별로는 음료가 전체 업체의
84%를 차지하여 심한 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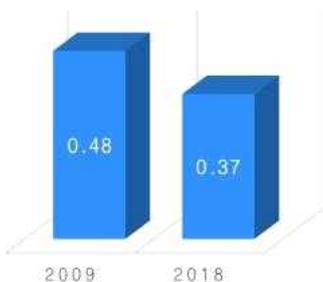
➡ 품목다양성이 부족하고 영세업체 생산제품의 신뢰도 문제 제기

I 금산 인삼산업 현황 진단

1. 금산 인삼산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소비부문

■ 소비량은 급속한 감소, 홍삼 복용편의식품 중시

인삼소비량
(g/1인)



소비형태는 홍삼 가공제품 중심

- 전국 소비량 (2018)
: 뿌리삼(1,657톤), 가공제품(15,472톤)
- 엑기스 중심 → 캡슐 등 복용 편의상품 중심 선호
- ➡ 일상생활에서 식품으로 활용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 마련 시급

I 금산 인삼산업 현황 진단

1. 금산 인삼산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유통부문

■ 전국 인삼의 유통 중심지이나 부정적 측면 존재

- 시장규모: 8개 시장 / 1,045개 점포 운영
 - 건물 노후화로 시설 현대화가 필요
 - 일부 시장은 유통보다 보관 창고 기능 위주 운영
- 유통규모는 연간 14,346톤 / 5,465억원 (전국 수삼의 70%)
 - 미계약, 미신고, 미검사 인삼의 유통문제 상존
- 전통시장형 거래로 가격 투명성에 대한 소비자 불신 존재
 - 유사 중도매인 및 도매상 거래 중심
 - 소비자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 체계 미흡

I 금산 인삼산업 현황 진단

1. 금산 인삼산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유통부문



<금산수삼센터>



<금산국제인삼시장>

I 금산 인삼산업 현황 진단

1. 금산 인삼산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유통부문



<풍기인삼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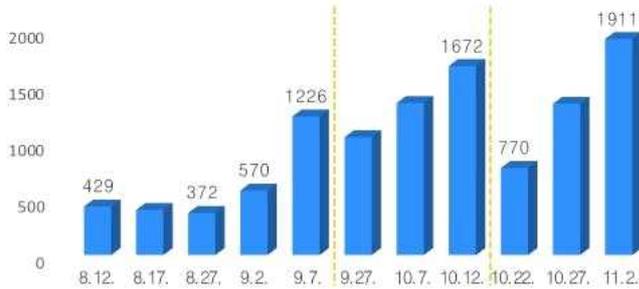


<강화인삼시장>

I 금산 인삼산업 현황 진단

1. 금산 인삼산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유통부문

수삼의 일간 소매 판매량
(장날 기준)



- 추석 : 9. 21
- 페이백행사 : 9. 27 ~ 10. 10(2주간)
- 쿠폰 제공 행사 : 10. 19 ~ 11. 22(34일 간)

인삼소비촉진 쿠폰사업
(금산수삼센터)



I 금산 인삼산업 현황 진단

1. 금산 인삼산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수출부문

■ 수출은 증가 폭이 미미하고 금산의 점유율은 14% 수준

2018년 기준 수출액

중화권과 동남아에 집중되어
다변화와 맞춤형 상품개발 필요



- 유럽, 할랄 등 시장 다변화 필요
- 원형삼(금산중심)은 감소위축 추세, 제품류(식품기업)는 성장 추세

I 금산 인삼산업 현황 진단

1. 금산 인삼산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제도개선부문

■ 약사법 등 정부정책 대응과 내부 체질강화

- 약사법에 대한 개선 건의 노력과 병행하여 준수 체질강화
- 인삼 재배농가 및 영세 가공업체 등 특화사업 발굴·제도화 강화
- 금홍(錦紅), G-마크 등 금산공동 브랜드와 관리지원제도 정비
- 시장 유통 인삼의 거래단위 미터법 도입과 용어 개선 등

II 금산 인삼산업 발전대책

1. 비전 및 목표

비전

1,500년 종주지에 걸맞는 금산인삼약초산업의 재도약

목표

생산

최고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인삼약초 안정생산

가공

안전성과 다양성을 고루 갖춘 시장 선도형 제품생산

유통

유통시장 신뢰확보와 수출 등 유통채널 확대

추진방안

- 혁신위원회 구성(유관기관, 전문가, 당사자가 참여)
- 생산, 가공, 유통 등 분야별 주체가 주도하는 논의구조 운영
- 분야별 과제도출 및 책임 추진체계 구축, 주기적 점검

II 금산 인삼산업 발전대책

2. 과제별 추진방안(안)

■ 생산: 최고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인삼약초 안정생산

문제점 및 당면과제

- PLS 및 식품위생법 기준에 부적합한 일부 생산물의 시장유입
- 연작장애 발생에 의한 재배적지 감소와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 증가
- 자재값 상승과 노령화 등 노동력 부족에 의한 생산비 증가
- 인삼재배에 4차 산업혁명 등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

II 금산 인삼산업 발전대책

2. 과제별 추진방안(안)

10대 추진과제

- ① 인삼 GAP인증 인삼분야 확대 : (21년도) 30% → (26년도) 70%
- ② 인삼경작자 실명제 완전추진 : 2024. 1월
- ③ PLS기준 인삼·약초의 잔류농약 안전성 인증시스템 완비(2023.12월 예정)
- ④ 고품질 우량인삼 생산을 위한 예정지 토양화학성 검정
- ⑤ 친환경 인삼생산을 위한 유용미생물 및 영양제 지원
- ⑥ 연작장애 경감을 위한 객토, 토양개량제 및 토양소독 등 지원
- ⑦ 기후변화 대응 안정생산 기반 지원 : 해가림 시설, 신종병해충 등
- ⑧ 첨단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 강화와 신기술 도입
- ⑨ 인삼농가 노령화에 대한 귀농인, 청년농업인 육성과 외국인 근로자 등 노동력 확보대책
- ⑩ 새싹인삼 안정생산을 위한 생산농가, 농장 지원

II 금산 인삼산업 발전대책

2. 과제별 추진방안(안)

■ 가공: 상품 다양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소공인의 역량강화

문제점 및 당면과제

- 관내 제조기업, 소공인의 시설 및 장비 노후화 등 개선 필요
- 즉석제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도 미흡
- 수출 희망 소공인들을 위한 컨설팅과 시장접근 지원시스템도 부재
- 동종, 유사 품목 제조에 편중되어 있어, 상품다양성 개선이 시급

II 금산 인삼산업 발전대책

2. 과제별 추진방안(안)

10대 추진과제

- ① 인삼약초(지역식품)분야 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
- ② 지역 제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 ③ 고객 니즈에 의한 기술 및 전문 컨설팅 제공 시스템 구축
- ④ 소공인 아이디어의 상품화 및 상품성 평가 지원(제품성 향상)
- ⑤ 전문인력 양성과 소공인의 역량향상을 위한 상설 교육환경 마련
- ⑥ HACCP, GMP 등 소공인 생산환경 개선 지원(시설·장비 공동활용)
- ⑦ 홍삼 및 흑삼제품에 대한 육성, 수삼을 활용한 음식 등 다양한 생활 레시피 개발 보급
- ⑧ 청년소공인 모임 등 다양한 학습조직 운영
- ⑨ 인삼약초부산물 활용 지역특화산업 에코시스템 체계구축
- ⑩ 지역특화작목 중심 산업지원-Hub 구축

II 금산 인삼산업 발전대책

2. 과제별 추진방안(안)

■ 금산군 인삼약초 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 계획

사업개요

사업목적	▶ 인삼·약초 가공제품의 표준화된 가공기술 정립과 지역 생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대상지	▶ 기 간: 2021. 1월 ~ 2025. 12월 (5개년 사업) ▶ 대상지: 부리면 창평리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內 (지목 場/대지면적 9,684㎡/3개필지)
사업비	▶ 총 25,900백만원 (도비12,950만원/군비12,950백만원) *도비:군비=50:50 *연차별 투자계획: 21년도(5,260백만)+22년도(10,195백만)+23년도(4,220백만)+24년도(3,130백만)+25년도(3,095백만)
주요 사업내용	▶ 특화산업육성 플랫폼 구축(13,078백만원) : HACCP, GMP, GAP인증 가공시설 및 장비(30종 70여대) ▶ 품질관리 지원체계 구축(5,970백만원) : 관내기업의 HACCP 컨설팅, 국가별 규격인증 지원, 성분유효성 평가 등 ▶ 특화산업R&BD사업(6,852백만원) : 효능구명, 신소재 개발, 융복합제품 등 신상품 개발 등

II 금산 인삼산업 발전대책

2. 과제별 추진방안(안)

업무영역별 구분

구분	주요업무내역	주요영역	공동장비	전문인력
표준화지원센터 (본동1층) (13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 등 품질 관리 - 기술개선 및 반영 - 대량/양산 기반시스템 - HACCP, CMP 인증 기반 	기술 및 품질, 공정 표준화 영역	공용 생산장비	7명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본동2층) (5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육성 창업보육 교육 - 지역클러스터 협업화 - 온-오프라인 마케팅 - 바이어 활용 플랫폼 	시장 진입 환경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영역	공용 시제품 장비	4명

II 금산 인삼산업 발전대책

2. 과제별 추진방안(안)

사업대상지 현황



II 금산 인삼산업 발전대책

2. 과제별 추진방안(안)

표준화지원센터 조감도



II 금산 인삼산업 발전대책

2. 과제별 추진방안(안)

■ 유통: 상품의 안전성 및 신뢰도 향상과 마케팅 선진화

문제점 및 당면과제

- 경작미신고 농가, 안전성 미검증 수삼의 시장진입 차단장치 미흡으로 지역시장 신뢰하락
- 경매제도가 아닌 중도매인과 소매상 중심의 거래로 가격 투명성 미흡
- 인삼농협이 설립되어 있으나 수삼시장 점유 비중이 낮고 농협브랜드의 파워도 부족
- “금홍” 과 “G-마크” 시행되고 있으나, 참여율 낮고, 홍보효과 미흡
- 주요 인삼생산 경쟁지역에서 집중적인 금산견제 홍보
- 승열작용, 우수효능 등의 체계적인 홍보전략이 미흡
- 체계적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부재. 일회성, 단발성(홍보판촉)행사 치중
- 수출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세, 홍삼제품으로 편중 백삼, 태극삼 등은 수출량 미미 (중화권, 동남아시아가 주요 시장으로 신 수요처 발굴 필요)

II 금산 인삼산업 발전대책

2. 과제별 추진방안(안)

10대 추진과제

- ① 채굴 전 안전성 검사 제도화(의무화)
- ② 안전성 단계별 컬러박스 사용으로 독자적 안전체계 조기정착
- GAP 인삼(녹색), 채굴 전 안전성 검사(황색), 실명제 참여(흰색)
- ③ 금산 수삼시장 경매제 도입 시행(금산인삼공사 설립 등)
- ④ 금홍, G-마크 등 인증형 브랜드 체계 정착(골드, 실버, 브론즈 등 등급 설정)
- ⑤ 인삼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전략적 홍보 강화 : 승열작용 등
- ⑥ 수삼시장 시설개선과 운영의 공영화
- ⑦ 국제인삼시장 리모델링 추진
- ⑧ 수출 확대를 위한 국가별 맞춤상품 개발 등 전략마련
- ⑨ 수출 확대를 위한 신시장 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
- ⑩ 인삼의 식품으로서의 소비 확대

II 금산 인삼산업 발전대책

2. 과제별 추진방안(안)

■ 인삼 이용 요리



인삼불고기



인삼갈비탕



인삼영양밥



인삼새우볶음



닭인삼말이튀김



인삼완자튀김



인삼골고추장



인삼샐러드



인삼떡



인삼우유
셰이크

II 금산 인삼산업 발전대책

2. 과제별 추진방안(안)

■ 인삼 이용 요리



인삼삼겹살



인삼전복죽



인삼도토리수제비



인삼김치



인삼부추무침



인삼연어생채



인삼마늘꿀절임



인삼정과



인삼튀김



인삼차

II 금산 인삼산업 발전대책

2. 과제별 추진방안(안)

■ 제도개선: 법령개선 노력과 육성정책 다양화

문제점 및 당면과제

-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는 용어 등 정비
- 의약품·한약재로서의 인삼의 판로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 노력 경주
- 소비를 위한 방문객 감소 문제
- 다양한 인삼의 종류별 육성정책이 미흡
- 인삼부산물(잎, 줄기, 열매, 홍삼박 등)의 산업폐기물 분류와 처리비용 과당에 따른 가공업체 부담 발생
- 중도매인과 소매상 중심의 거래로 가격투명성 미흡
- 인삼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거래자인증제도의 부재

II 금산 인삼산업 발전대책

2. 과제별 추진방안(안)

추진과제

- ① 수삼거래 단위의 표준화 : ‘채’ 단위 → ‘kg’ 단위
- ② 수요자(소비자) 중심의 쉬운 용어로 정비 (수삼 → 생삼 등)
- ③ 인삼산업법과 약사법 개정 추진
- ④ 국가단위 인삼진흥원 설립 지원 및 유치
- ⑤ 금산국제인삼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 ⑥ 금산수삼시장의 시설 개선
- ⑦ 인삼부산물 활용 지역농식품산업 ECO-시스템 구축
- ⑧ 수삼도매 및 경매 재도입 및 시장 운영의 공영화 추진

II 금산 인삼산업 발전대책

2. 과제별 추진방안(안)

■ 풍기 인삼 경매



종류	단수	비고
광출대	2 ~ 3	반, 단말 수삼과 동일
광대	3 ~ 4	
특대	5 ~ 6	
대편	7 ~ 8	
중편	9 ~ 10	
소편	11 ~ 12	
막시	13 ~ 14	
대상계	15 ~ 17	
중상계	18 ~ 22	
소상계	23 ~ 28	
관상계	기타	
짝기		
파		



구분	매출액	매출량	매출단가	매출량	매출단가
광출대	12,000,000	2,000kg	6,000	2,000kg	6,000
광대	10,000,000	2,000kg	5,000	2,000kg	5,000
특대	8,000,000	1,600kg	5,000	1,600kg	5,000
대편	6,000,000	1,200kg	5,000	1,200kg	5,000
중편	4,000,000	800kg	5,000	800kg	5,000
소편	2,000,000	400kg	5,000	400kg	5,000
막시	1,000,000	200kg	5,000	200kg	5,000
대상계	1,000,000	200kg	5,000	200kg	5,000
중상계	1,000,000	200kg	5,000	200kg	5,000
소상계	1,000,000	200kg	5,000	200kg	5,000

II 금산 인삼산업 발전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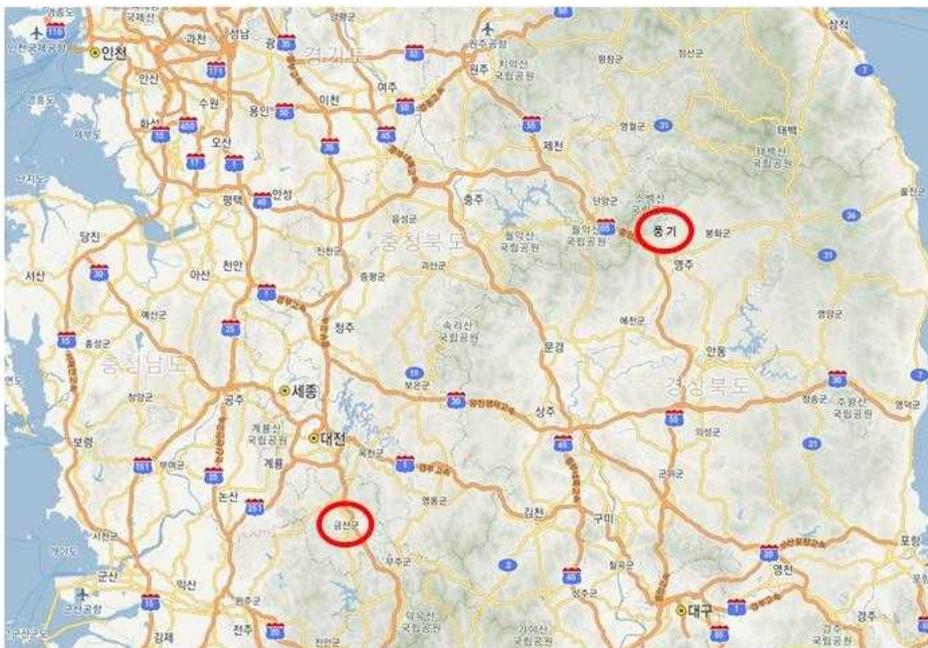
2. 과제별 추진방안(안)

■ 풍기 인삼 경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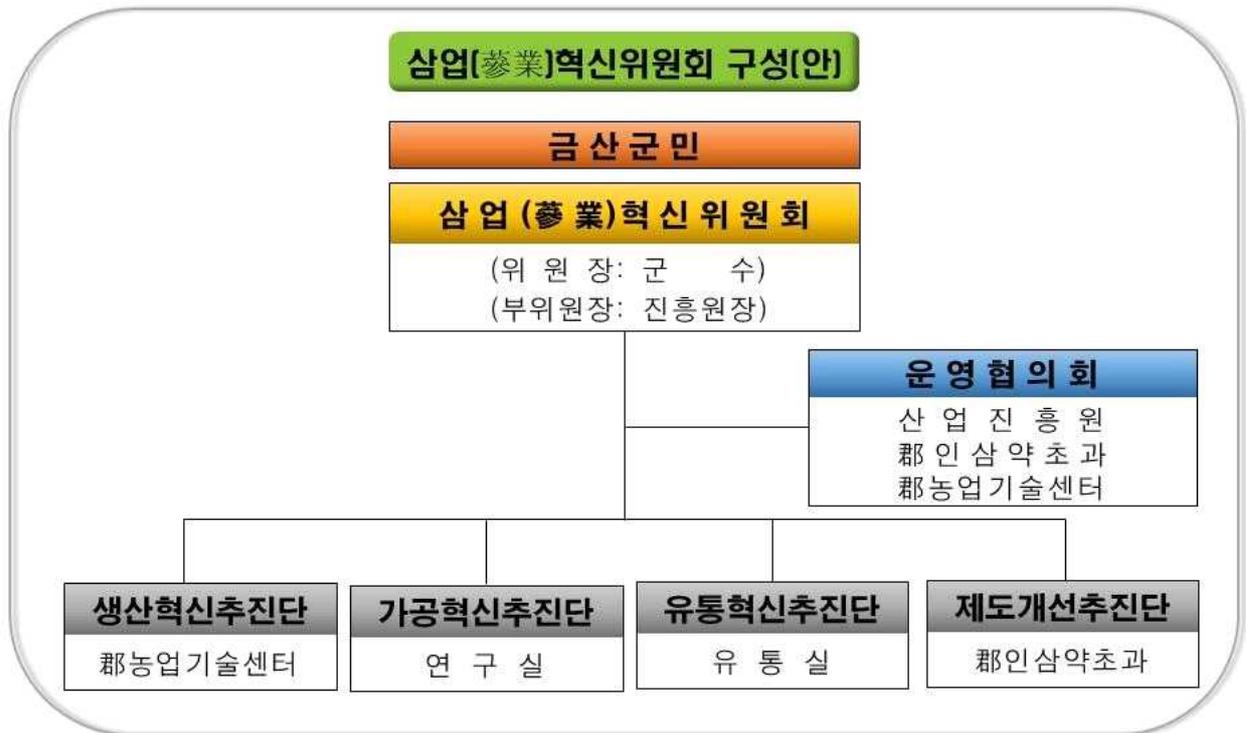


II 금산 인삼산업 발전대책

2. 과제별 추진방안(안)



Ⅲ 삼엽혁신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



Ⅲ 삼엽혁신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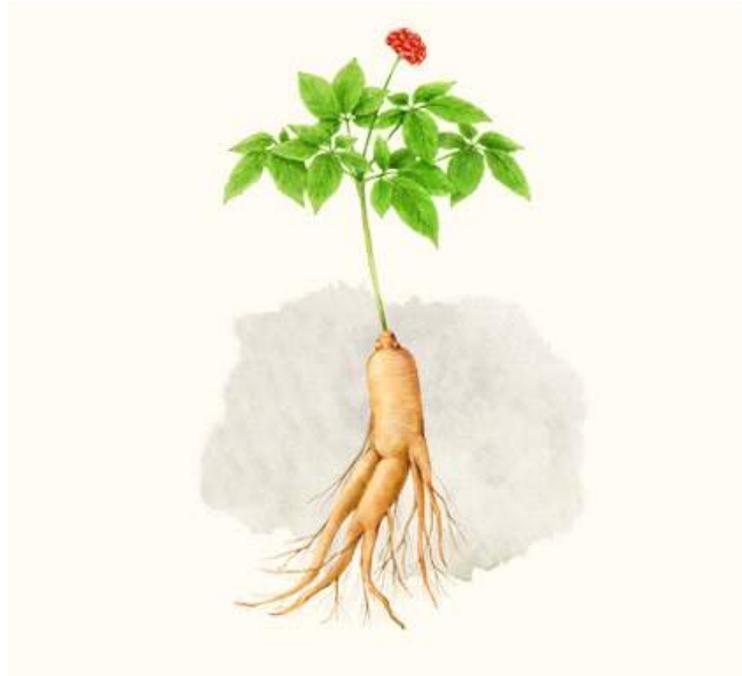
운영 계획

- 삼엽혁신위원회 : 분기별 1회 회의개최
 - 추진단별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개선 및 추진과제 도출
- 분야별 추진단 : 월별 1회 회의개최
 - 월별 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과제 직접 수행
- 운영협의회 : 매주 1회 회의개최
 - 과제별 실행주체로서의 책임활동

지정토론-1



금산 인삼약초산업
기본 틀을 바꿔야



충청남도 금산군
문정우 군수

금산 인삼약초산업 기본 틀을 바꿔야

문정우 금산군수

금산은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서 금산인삼의 역사는 1,500년 전 백제시대부터 시작되었고 한의학적으로 가장 오랜 약용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예로부터 인삼중에 최상품으로 여겨져 온 백제인삼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인삼은 다른 나라의 인삼보다 사포닌 성분이 골고루 조화를 이루고 함량도 높아 그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금산 인삼시장은 전국 인삼 생산량의 약 70%를 유통하는 전국에서 가장 큰 인삼시장으로 인삼은 연간 약 1만 4천톤, 5,465억원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금산전통인삼농업은 2018년 7월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이는 인삼작물로는 세계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이며, 금산인삼의 오랜 역사와 전통은 전 세계가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금산인삼의 전통성, 상징성, 세계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산인삼은 전례없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인삼소비 감소, 가격하락, 재고량 증가 등으로 인삼 생산농가부터 인삼산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삼은 기본적으로 생활필수품이라기보다는 기호품입니다. 전례 없는 팬데믹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기호품 소비부터 줄이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해외여행객이 줄어 홍삼 판매에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면세점 매출이 급감한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삼산업의 위기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경쟁력 확보

먼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입니다. 인삼의 대표적 성분인 사포닌은 쓴맛을 특징으로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쓴맛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건강기능식품이 한정적이었던 반면 현재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삼을 활용한 제품류는 홍삼 등 몇몇의 제품에 불과하고 ‘쓴맛’에 대한 낮은 선호도를 가진 젊은 층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해 인삼에 대한 수요가 하락하고 이렇게 감소된 소비는 재고 누적으로 이어져 인삼가격이 하락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성이 확보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인삼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다양한 연구개발과 시설장비 등 확충이 필요한데 현재 관내 인삼관련 제조업체 90%가 영세한 실정으로 소비 트렌드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올해부터 5년간 250억 원이 투입될 인삼약초산업 표준화 지원센터와 내년부터 50억 원이 투입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다양한 계층별 입맛을 공략할 수 있는 제품별·공정별 표준화와 이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춰 제품개발부터 품질관리, 판로개척, 기업육성 등의 일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소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 인삼시장의 전근대적인 거래방식 개선 - 경매제 도입

인삼시장의 후진적 거래방식도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산수삼시장은 국내 최대규모의 산지수집 시장이자 전국 수삼유통량의 70%가 거래되는 유통의 메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산수삼시장은 다른 농산물 도매시장과는 달리 유통 및 거래방식이 전통시장형으로 생산자가 팔고자 하는 물량을 시장에 내고, 다른 농가 수삼의 품질과 당일 거래장에 나온 상인의 구매요구 물량, 농가 또는 산지수집상의 호가 등 다양한 참가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통구조로 인해 금산수삼시장은 몇몇 산지수집상 또는 도매인이 기준가격과 소비 물량 등의 거래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매제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검토와 연구, 시도가 있었지만, 거래 물량 등에 대한 정보의 완전성과 투명성 부족에 따른 신뢰감 저하, 전통시장형 방식 고착화 등 제도와 인식 부족으로 경매제도가 도입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신뢰 확보 기반 구축과 상인들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단계별로 박스 색상 분류 및 생산자 실명 표시 스티커 부착, 채굴 전 안전성 검사, GAP 인증 인삼 유통시스템 구축 등 유통의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교육을 통해 상인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등 경매제 도입을 위한 장기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수요와 공급간의 수급 균형 제도 마련 - 경작신고 의무화

생산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극심한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무너질 경우 인삼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생산량 예측 및 조절로 인삼시장의 수급을 안정화 시킬 제도가 필요합니다.

1995년 인삼 전매제도가 폐지된 이후 생산기술 발달 등으로 공급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는 호황을 누린 적도 있지만 점차 감소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현재의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작신고가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경작신고가 의무화 되면 신고경작지를 통해 생산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으며, 미래 생산량 예측으로 정확한 수급 안정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인삼산업법」에는 경작신고가 ‘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하여야 한다’ 라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인삼을 재배하려는 농가는 반드시 경작신고를 할 수 있도록 경작신고 의무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다만, 경작신고 의무제로 일부 소규모 농가에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경작신고 의무제 예외 조항 등 소규모 농가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경작신고 의무제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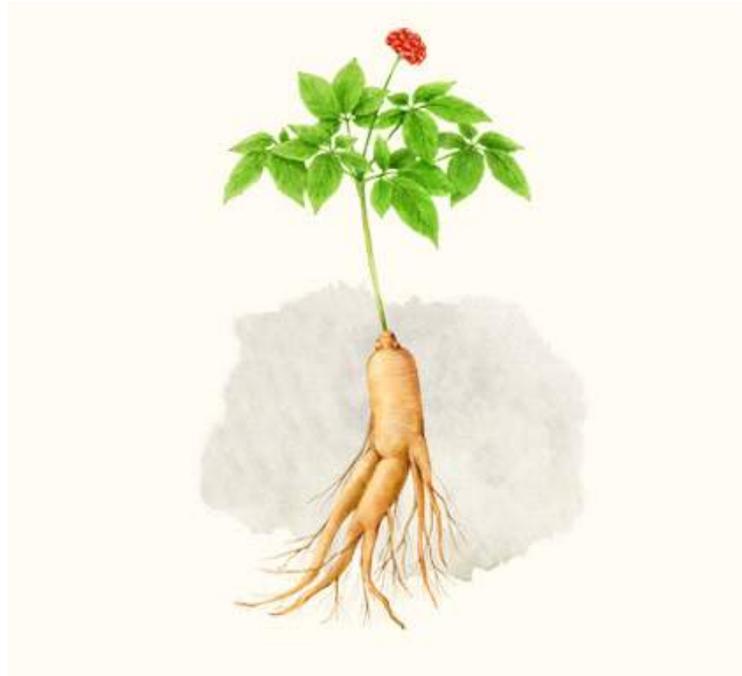
끝으로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에서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인삼산업 종사자들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지원과 인삼산업 종사자들이 자발적인 노력 등이 하나 되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면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정토론-2



금산 인삼 유통 활성화 방안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정낙춘 국장

금산인삼 유통 활성화 방안

정낙춘 국장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 금산인삼 위기 요인

- (기후변화) 집중호우, 급격한 기온 상승·하락 등으로 자연재해 빈번, 현재 농업재해 대책 매뉴얼로는 안정적인 영농이 어려운 시대 도래
 - 연평균 기온 변화 : '71~'00)12.3℃ → '81~'10)12.5℃ → '91~'20)12.8℃로 지속 상승
 - 인삼 등 원예작물의 작부체계 개선 등 농작물 재배방법 개선 필요
- (저년근 재배) 4~5년근 재배로 6년근 중심의 소비시장 경쟁력 취약
 - 금산은 신규 경작지 부족, 논 재배를 통한 4~5년근 위주로 생산
 - 소비자는 6년근 인삼·제품류 선호 → 인삼 소비시장 6년근 주도
 - 계약재배(수매) 6년근 위주, 미계약 재배로 가격 등락에 취약한 영농 환경
- (계약재배 감소) 소비감소, 재고량 증가 우려로 계약재배 지속 감소
 - 계약재배 감소 반면 생산량은 증가, 시중유통 수삼 지속 증가(추정)
 - 민간 수매량(비율) : '14)10,501톤(50.1%) → '19)7,754톤(39.6%) → '20)6,988톤(29.2%)
 - 전국 미계약 생산(16,908톤) 중 70%인 11,800톤이 금산시장 유통(추정)
 - (전국) 계약생산(6,988톤/29.2%), 금산시장(11,800톤/49.3%), 직거래(5,180톤/21.6%)등
- (비대면 판매 확대) 대면·방문 구매 축소, 비대면·온라인 구매 증가
 - 코로나19 발생 이후,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거래액 폭발적 증가
 - 온라인쇼핑 거래액 : '19년) 135조 2,640억원 → '20년) 161조 1,234억원(19.1% 증가)
 - ↳ 농축수산물 거래액 : '19년) 3조 5,342억원 → '20년) 6조 563억원(71.3% 증가)
- (단편적 유통구조) 시장중심 대면판매 의존, 코로나19 등 위기대응 취약
 - 온라인쇼핑 중심의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라, 오프라인 판매방식의 위기 지속
- (안전성 불확실) 안전생산은 공감하나 채굴전 검사 등 안전성 검사 미온적
 - PLS 등 농산물에 대한 규제 강화, 불확실한 안전성으로 소비자·구매자 불안감 지속

□ 금산인삼 위기 대응 방안

○ (6년근 재배 확대) 소비트렌드(6년근)에 맞는 재배·생산분야 변화

< 연근별 인삼 생산현황('20년) >

(단위 : 톤, ha)

지역	계		2·3년근	4년근	5년근	6년근	
전국	생산량	23,896 (100%)	280 (1.2%)	2,045 (8.6%)	5,562 (23.3%)	16,009 (67%)	
	재배면적	15,160 (100%)	3,760 (44.4%)	3,363 (22.2%)	2,886 (19%)	2,181 (14.4%)	
충남	생산량	2,609 (100%)	23 (0.9%)	275 (10.5%)	891 (34.2%)	1,420 (54.4%)	
	재배면적	2,274 (100%)	1,098 (48.3%)	542 (23.8%)	436 (19.2%)	198 (8.7%)	
주요 시군	금산	재배면적	519 (100%)	290 (55.9%)	138 (26.6%)	83 (16%)	8 (1.5%)
	서산	재배면적	280 (100%)	114 (40.7%)	62 (22.1%)	56 (20%)	48 (17.1%)

- 6년근 생산량 비율('20년)은 전국 16,009톤(67%), 충남 1,420톤(54.4%)
 - ▶ ①강원 3,503톤(21.9%), ②전북 3,046(19), ③경기 2,413(15.1), ④경북 2,295(14.3), ⑤충북 2,278(14.2), ⑥충남 1,420(8.9) 順
 - ▶ 금산군 재배면적 519ha 중 4·5년근 221ha(42.6%), 6년근 8ha(1.5%) 수준
- 6년근 재배면적 비율('20년)은 전국 2,181ha(14.4%), 충남 198ha(8.7%), 금산 8ha(1.5%)

< 충남 시군별 재배면적 현황('20년) >

(단위 : ha)

구분	계	①서산	②예산	③태안	④당진	⑤홍성	⑥공주	⑦아산	⑧논산	⑨금산	기타 (6시군)
재배면적 (6년근)	198 (100%)	48 (24.2%)	29 (14.6%)	29 (14.6%)	24 (12.1%)	20 (10.1%)	15 (7.6%)	10 (5.1%)	9 (4.5%)	8 (4.0%)	6 (3.0%)

구분	계	①금산	②논산	③서산	④당진	⑤예산	⑥공주	⑦태안	⑧천안	⑨홍성	기타 (6시군)
재배면적	2,274 (100%)	519 (22.8%)	341 (15%)	280 (12.3%)	185 (8.1%)	171 (7.5%)	165 (7.3%)	156 (6.9%)	112 (4.9%)	112 (4.9%)	223 (10.2%)

* 금산군 재배면적은 519ha(22.8%)로 충남 1위 반면, 6년근은 8ha(4.0%)로 9위로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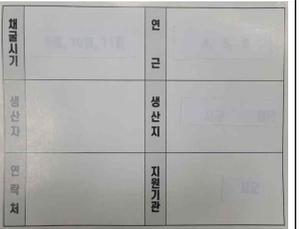
- 계약재배 확대, 소비트렌드 변화 대응을 위해 6년근 재배로 전환 필요

○ (안전성 관리 강화) 안전성 검사, 실명표기 후 금산 도·소매시장 반입

- 계약재배(인삼공사·농협 등)로 수요처가 정해진 타 지역에 비해, 과잉 공급에 직면한 금산인삼의 최우선 과제는 안전성 확보
- 현재, 도·소매시장은 안전성 검사 여부 관계없이 전국의 인삼 반입·판매 중

-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차별화를 위해 실명표기·안전성 확보 필수

* 수삼 포장용 컬러박스 및 생산자 실명 스티커 활용
 ↳ 녹색(GAP인삼), 황색(안전성검사), 흰색(실명제 참여) → 실명스티커 부착 후 유통

			
GAP인증 인삼(녹색)	안전성 검사 인삼(황색)	실명제 참여 인삼(흰색)	생산자 실명 스티커

○ (인삼시장 재구축) 수삼시장 이전 등 신규 플랫폼 구축

- 현재 인삼시장은 건물 노후화 등 낡은 플랫폼 유지 중, 관광 명소화·MZ세대 유인 등 소비자 관심 제고를 위해 새로운 플랫폼 구축 필요
- 큰 틀에서 '공익기능 도매센터' 설립하여 수삼시장(수삼센터 등) 등 이전, 집적화
- 기존 시장의 유희공간을 활용한 '인삼약초음식문화거리' 등 인삼관련 테마공간 조성하여 시장 특성 차별·전문화
- 신규 플랫폼(하드웨어)과 관광·축제 콘텐츠(소프트웨어)로 방문객 유도

○ (유통주체 육성) 인삼류, 제조·가공품 등 관리·유통 전담 주체 육성

- 수삼 소매상인별 단골 고객 위주 판매, 제조업체 개별적 판로 운영 등 유통의 역량이 소규모로 분산되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 취약
- 금산 인삼시장 유통을 총괄하는 유통전담조직(통합마케팅 조직)을 육성하여 온·오프라인 유통판로 개척 및 가격협상 등 유통시장 경쟁력 확보
- 유통 전담 조직 운영으로 대형마트 공급, 신시장 개척 등 유통채널 다양화 추진

⇒ 인삼산업의 위기에 대응하여 재배·유통분야의 변화 필요. 민·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소통으로 고려인삼 종주지의 위상 재정립 기대



금산 인삼 약초 가치
Up Grade를 위한 방안 및
R&D 추진방향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김현호 소장

금산 인삼 약초 가치 Up Grade를 위한 방안 및 R&D 추진방향

김현호 소장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1. 산업현황

가. 국 내

- (산업) 소득향상, 웰빙 트렌드로 생산 규모 증가 후 최근 정체이며, 수출은 점진적 증가 추세
 - (재배면적) ('10) 19,010 ha ⇨ ('15) 14,213 ⇨ ('20) 15,160
 - (생산액) ('10) 9,385 억원 ⇨ ('15) 8,194 ⇨ ('20) 8,191
 - (수출액) ('10) 124 백만\$ ⇨ ('15) 155 ⇨ ('20) 229
- (생산환경) 생산기반 위축으로 고품질 원료삼 안정생산 한계
 - (기후변화) 저온, 고온, 태풍 등 이상기상 피해 잦음
 - * 피해면적: ('18) 폭염 3,688ha, ('19) 태풍 320, ('20) 폭우 698, ('21) 저온 112
 - (초작지) 연작장해 극복을 위한 신규 경작지 확보 곤란
 - (경영비)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으로 생산비 증가
 - * 경영비(천원) : ('10) 5,721 ⇨ ('15) 7,654 ⇨ ('19) 7,772
 - * 생산비는 중국(5.9배), 미국(3.3배), 캐나다(2.5배)보다 높음('19, KRED)
 - (생력화) 파종, 수확 외 재배관리 분야 기계화 미흡
 - (해가림) 재해 안전화, 재배관리 향상 해가림 개선 필요
 - (안전성) PLS 도입, GAP 인증 등 안전 인삼 생산 요구 증대
 - * 안전생산을 위한 병해 종합 관리기술 개발 요구

☞ **우량품종 개발 및 보급 확대, 재배기술 혁신(디지털 적용), 병해충 종합관리 등 고품질·안정생산 기반 확대 필요**

- (경기침체)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인삼소비 감소 및 재고 누적
 - 국내외 관광객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 : 면세점 700억, 사후면세점 800억
전통시장(남대문, 경동시장 등) 500억
 - * 기타 : 지역 인삼축제(금산 등 9개지역) 미개최에 따른 수삼판매 급감
⇒ 인삼축제 매출액(금산) : ('18) 751억원 ⇒ ('19) 787(수삼 462억)
 - 산업체 및 인삼조합 재고누적 등에 따른 원료삼 가격 하락
 - 재고규모(추정) : KGC인삼공사 1.3조, 인삼농협(한삼인 포함) 0.3조
 - * 수삼가격(원/750g) : ('10~'19 평균) 32,190원 ⇒ ('20) 28,056
⇒ 파삼(등급 외 원료삼) 도매가격 6,750원/750g, 전년 대비 29% ↓
- (소비) 국내소비는 정체 상태이며, 수삼소비는 줄고 홍삼제품류 소비는 증가추세
 - 건강기능성 제품의 다양화, 주 소비층 고령화, 소비패턴 변화
 - * 소비량(kg/인) : ('10) 0.43 ⇒ ('15) 0.34 ⇒ ('17) 0.38 ⇒ ('20) 0.38
 -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에서 홍삼·인삼 매출 비중 감소('19., 식약처)
 - * 점유율 : ('12) 50.3% ⇒ ('15) 41.0 ⇒ ('17) 48.9 ⇒ ('19) 37.9
 - *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개별인정제품 등의 기타 건강기능식품 수요 증가
 - 홍삼을 제외한 기타 인삼의 소비 비중 감소
 - * 수삼에서 홍삼, 홍삼에서 홍삼 제품류로 소비형태 변화
 - * 수삼 : ('14) 36% ⇒ ('20) 21, 홍삼 : ('14) 60% ⇒ ('20) 76
 - 음용 편리한 엑기스 등 제품류 소비 증가와 건강·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약재를 첨가한 복합제품 소비 증가 추세
- (건강) 포스트코로나, 고령화 등 건강에 대한 소비자 인식 증가
 - 면역증진 등 건강기능성식품 수요 증가
 - 인삼류가 원료로 사용된 건강기능성식품은 총 8건
 - * 인삼류(인삼, 홍삼 등)의 기능성('21) : (고시) 면역력 개선,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항산화, 혈액순환 개선, 갱년기(여성) 완화, 뼈건강 개선, 간기능 개선
 - 소비 형태는 저장용·가공용 홍삼으로 제조되며, 아울러 대다수 건기식 등 재가공한 홍삼 형태로 판매
 - 홍삼 대비 수삼·백삼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산업 확대 한계
 - * 홍삼 매출액 : ('17) 10,358억원 ⇒ ('18) 11,096 ⇒ ('19) 10,598

2. 시장전망

- (환경변화) 코로나19 이후 건강관리가 주요 이슈로 부상
 - 고령화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건강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로 건강기능성 식품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 * 국내시장 규모(식약처, 억원): ('15)18,230 ⇨ ('17)22,374 ⇨ ('19)29,508
 - *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건강기능식품을 더 많이 섭취한다'는 응답자가 78.2%(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 5)
 - 건강, 면역 등 고부가 기능성 소재의 원료로 인삼 이용 증대
- (수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신시장 개척 및 제품 다양화 필요
 - 제품의 주요 수출 품목은 6년근 홍삼제품에 집중
 - * 품목별 수출 비중('19, %) : 홍삼류 68.8, 인삼음료 23.6, 백삼류 6.7, 기타 0.9
 - 수출은 홍콩, 중국 등 중화권·동남아 국가로 편중되어 증가
 - * 국가별 수출비중('19, %) : 중국 33, 일본 16.3, 홍콩 13.7, 베트남 10.1 등
 - 수출은 점진적 증가추세이나, 품질 다양화 및 고급화 미흡으로 인삼산업 발전이 더딤
 - ☞ 산업체 연계 국내외 소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재 다양화 및 신제품 개발 필요
- (기능성) 웰빙 트렌드에 따라 인삼 가공제품(홍삼) 시장은 빠른 성장세 유지
 - 세계 인삼추출물 시장 규모는 약 218억 달러('21)로 추정되며, 연평균 6.1%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가 세계 인삼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The Global Ginseng Market)
 - 세계 인삼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브랜드는 ILHWA(중국), Starwest Botanicals(미국), KGC인삼공사(한국) 등임
 - 국내 인삼 관련 제품 품목 중 홍삼류(홍삼, 홍삼조제품 등)가 72.5% 차지

3. 인삼 R&D 방향 (재배, 생산)

□ (품종육성) 신품종 육성 및 육종효율 향상

○ 현재까지는 주로 생산자 요구를 반영한 품종 육성(다수확, 내병성)

- 유전자원 다양성 부족으로 수요자 맞춤형 품종개발에 한계
- 기 개발된 품종들은 주로 다수성, 우수체형, 재해저항성 품종임

* 인삼약초연구소 : 금선('13, 내적변, 다수성, 농가보급중 - 농가선호),
금진('15, 우수체형, 고사포닌), 금원('17, 내병성)

앞으로, 내고온성, 논삼직파용, 고기능성등 복합저항성 품종육성에 집중

* KGC인삼공사(13개), 농진청(4개)

- 기후변화 등으로 내재해성 신품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종자증식 효율이 낮아 신속한 품종 보급이 어려움

□ (재배기술) 고품질 안정생산, 생산비용 절감 및 이상기상 대응 피해 경감

○ 고온대응 차광자재 선발 및 해가림개선연구(논인삼 해가림각도, 면림 등)

○ 친환경 안전생산을 위한 병해충 진단·방제 및 연작장해 경감

* 토양소독(태양열 및 훈증)을 통한 인삼뿌리썩음병 종합방제체계 구축

-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 : 방제효과, 비잔류 방제체계구명, 농가보급
- 약제 저항성 잣빛곰팡이병원균 모니터링 및 약제 반응 조사
- 금산군 인삼 예정지 토양 모니터링(잔류농약, 분해기술접목)

○ 친환경 방제 및 안전생산 관리기술 개발

- 인삼 병 억제 이용기술 및 친환경 방제법 개발

* 석회보르도액(유기농자재) 등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체계 검정

- 인삼 국제표준 인증기준 설정을 위한 위해요소 관리기술 개발

* 인삼 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GAP 및 GLOBAL GAP 인증

□ 인삼 정밀농업, 생리·생태 및 양분관리 연구로 생산 최적화

○ 생육단계별 예측 모델 개발

- 온도, 광 등에 따른 생육 및 안정 수량 확보를 위한 예측 모델개발

○ 기상환경에 따른 생리기작 해석 연구

- 이상기상(저온, 고온) 대응 피해경감 예측 모델 개발
- 주산 단지별 환경·생육 데이터 수집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

○ 연생별 양분 요구도 및 적정 재배 기술 개발

- * 생산목표에 맞는 시비 방법, 예정지 관리 등 재배관리 체계 구축
- * 추비 유기질비료 사용 검토(「인삼산업법」 개정 가능 여부 협의)

4. 금산 인삼 가치 Up grade 방안제시

□ 소비자 신뢰 확보(재배, 안정성, 수삼가격)

- GAP 인증제 확산 : '25년도 전체면적의 60% 이상으로 독보적 우위차지, 안정성 확보 등 유통뿐만 아니라 주산지 기능회복 GAP인증 인삼가격 차별화 정책 마련(참여율 확산)
- 인삼 예정지 지속적인 농약잔류 모니터링 : 빈도수 높은 엔도설판 등
- 수삼센터 수삼의 농약 안정성 확보 정책 강화 : 농약 안정성 검정 의무화
 - * 모든 인삼 채굴전 농약 안정성 검사 의무화 : 국가차원의 제도 마련
- 수급조절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및 인삼재배 경작신고 의무화
- 연구회 및 작목반 중심 인삼 안전 재배 기술교육 강화 : 농업기술센터, 인삼조합, (재)인삼약초산업진흥원, 인삼약초연구소
 - * 농약 안정성 뿐만 아니라 고품질재배기술 실천(4~5년수삼, 6년근재배포함)
- 공신력있는 금산 인삼가격 : 수삼센터의 역할,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형성 소비자가 신뢰하고 만족할만한 가격제시 등



인삼 소비 촉진에 대한 제언



백제금산인삼농협
강상묵 조합장

인삼 소비 촉진에 대한 제언

강상목 조합장
백제금산인삼농협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변화 및 대체하는 건강식품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인삼 소비량은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인해 홍삼, 인삼 제품 수출 및 금산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방문의 저하로 인한 소비부진에 따른 재고는 늘어나고 있으며 지속적인 체화 재고의 증가로 인삼가격 하락이 유발되어 농가의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학교급식, 군납>

이런 소비저하의 상황들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라 할 수가 없으며 그동안 우리 인삼을 최고의 건강식품과 선물로 귀하게 생각하며 또한 고부가가치 농업으로만 생각하였지 지속적인 변화의 개발을 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은 고년근 제품 및 인삼을 선호하는 반면 우리 금산지역 및 인근 충남, 충북, 전북 지역은 대부분이 저년근 인삼 주산지이다 보니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인삼이나 가공용 원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고년근 위주의 제품생산 및 홍보 등으로 저년근 인삼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삼의 주요 소비연령층이 40대 이상으로 성장기 청소년들이 접할 기회나 신메뉴, 먹거리 레시피 개발 및 신제품개발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중·고등학교 대상 학교급식 및 군부대 급식에 인삼을 활용한 음식과 제품을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야 청소년·군인들의 면역력 향상과 더불어 육체건강에 도움을 주며 미래 소비자 발굴과 인삼홍보, 소비가 촉진되는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인삼농협은 청소년 인삼 소비 촉진을 위하여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시, 청주시, 충청남도, 경기도 일부지역에 공공급식을 공급중이며, 공급 시작 단계로 품목 수, 매출액은 크지 않으나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충남 관내 중·고등학생만 해도 약 11만여명이며, 우리나라 군인인구가 약 60만명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군 급식시장이 조 단위의 시장으로 아주 많은 사업량을 가지고 있는 국내 내수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꾸준한 인삼소비촉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농협 등 이 협력사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의 기회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 인삼농협에서도 학생들의 기호에 따른 인삼제품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홍삼농축엑스틱, 홍삼 콜라겐젤리스틱, 홍삼구미, 우리쌀로 제조한 쌀과자 등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홍삼국수, 홍삼·인삼음료 등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의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모든 제품은 소비자의 선호와 기호가 맞아야 판매되어지며 변화되는 시장에 인삼, 홍삼도 발빠른 움직임과 정부와 지자체의 협조와 지원,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홍보/마케팅>

산업 전반에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어 코로나19가 안정화 되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은 앞으로도 이용 추세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오프라인 위주의 소비시장이 코로나19 펜데믹 사태이후 온라인 쇼핑 중심으로 급격한 시장 변화가 이루어졌고, 온라인 시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인삼, 홍삼 또한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 또한 오프라인 위주의 홍보마케팅과 더불어 온라인 시장 개척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홍보 마케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 드린 대로 기존의 인삼, 홍삼은 40대 이상 위주의 소비층이 주를 이루는 만큼 인삼의 소비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10~30대의 젊은 소비층의 기호에 맞는 제품 개발과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인삼’에 대한 이미지를 젊은 소비자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추진해야 합니다.

스마트 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바일 시대에 소비자와 소통하며 제품을 판매 또는 구매할 수 있는 마케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또한 많은 교육과 투자 등이 이루어 져야 실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온라인 어플 개발과 교육이 진행되어야 홍보 및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소비확대가 이루어 질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인삼, 홍삼은 언제나 최고라는 자만심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소비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찾아서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인삼, 홍삼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인삼약초시장 유통 안전성과
법률문제 등에 대한 고찰



금산국제인삼시장조합
정승철 조합장

인삼약초시장 유통 안전성과 법률문제 등에 대한 고찰

정승철 조합장
금산국제인삼시장조합

1. 유사 도매시장 인삼유통시 안전성검사 필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다른 농산물도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인삼산업법」이 있는 인삼이 안전성 없이 유통되는 것은 미래가 없다.

2. 제조된 인삼류, 백삼, 홍삼, 태극삼, 흑삼의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필요하다.

- ㉠ 소분판매, 검사 및 Box 디자인 지원
- ㉡ 계절별 성분 홍보

3. 제도개선

- 「약사법」 일부 재개정이 되도록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 「인삼산업법」에 따라 검사한 인삼이 약사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된 것으로 간주한다.

- 인삼은 그 중요성을 미리알고 한약재 자가규격제 검사 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한국인삼검사소에서 다양한 종류의 인삼을 검사해 왔음
- 한 곳에서 검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부정인삼혼합이 불가능 하였음.
- 현재 전국 한약재 GMP제조업소는 전국 150곳에서 절삼(切蔘)만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인삼산업법」 검사는 약으로 쓰여 질 경우 출하조절이 가능함에 따라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제조 후 1년간 보관가능, 검사 후경우에 따라 농협에 담보가능하기 때문에 과잉생산에도 인삼값이 폭락하지 않음

약사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307호, 2021. 7. 2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약사면허, 약국, 도매상 등) 044-202-2487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광고, 표시 등 사후관리) 043-719-2666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의약외품) 043-719-371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품질과-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제조관리자 교육 등) 043-719-278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시판후안전관리/피해구제) 043-719-2702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생물학적제제등) 043-719-331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식약처 총괄) 043-719-2620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제도과-(비)임상시험) 043-719-1863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한약) 043-719-3352

제85조의3(「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관한 특례) ① 「인삼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 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인삼류검사기관에서 검사하는 홍삼 및 백삼(「인삼산업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홍삼 및 백삼으로 수입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31조제2항에 따른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인삼산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인삼류제조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한 홍삼 및 백삼을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1. 한약업사
2. 의약품 도매상
3. 약국개설자
4. 한약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③ 제2항에 따라 홍삼 및 백삼을 판매하는 인삼류제조업자에게는 제47조, 제69조, 제71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5조, 제96조 및 제97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인삼류제조업자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인삼류제조업자의 공장·창고·점포나 사무소는 “의약품등을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장·창고·점포나 사무소”로 본다.

[본조신설 2015. 5. 18.]

인삼산업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원예산업과) 044-201-2238, 2239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특별관 리임산물인 산양삼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6. 22.>

② 「약사법」 제31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 고를 한 인삼류에 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6. 22.>

[본조신설 2011. 7. 25.]

「약사법」 검사와 「인삼산업법」 검사 비교표

구분	‘약사법’ 검사		‘인삼산업법’ 검사	
	검사장소	농협중앙회한약재제조업소 (전국1곳)	한약재제조업소 (전국 150곳)	농협중앙회 한국인삼검사 (전국1곳/통폐합)
검사방법	객관적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
수검자	불특정 다수	개인사업	불특정 다수	개인사업
검시기간	70~120일	알수없음	5일	알수없음
잔농검사	2회(검사 전후)	알수없음	1회(검사전)	1회(검사전)
잔농비용	500만원 ⇨ 253만원	알수없음	545,000원	545,000원
검사항목	인삼산업법과 유사함	인삼산업법과 유사함	약사법과 유사함	약사법과 유사함
검사종류	곡삼(소중대)절삼,(백삼)	절삼(백삼)	다양함 (약 28개 품목)	주로 홍삼
중국산 혼합여부	불가능	가능	불가능	-
검사량전망	감소	증가	감소	유명무실함 감소
성분비교	-	절삼 조사포닌:53.53 진세노사이드:4.97	곡삼 조사포닌:64.74 진세노사이드:16.54	-
검사번호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출하조절 여부	불가능	불가능	출하조절가능 인삼농가부가가치발생 담보대출가능	-

4. 금산은 인삼의 종주지, 집산지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

5. 명칭변경

- 수삼(水蔘)Water Ginseng은 생삼(生蔘)Fresh Ginseng으로 바꾸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 생삼(生蔘)은 수삼(水蔘)이 아니다

- 옛 고대부터 생삼이라는 이름이 있고 인삼경작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음.
 - 인삼은 산삼 씨앗을 받아 경작한 것이 최초이며, 산삼에서 유래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음.
- 일제강점기에는 한국인을 착취하기 위해 전매법으로 묶어 경작도 허가로 하여 생산량 전량을 매상으로 조치했음.
 - 광복 이후 힘을 얻어 관내도 1966년 6월 유진산 의원으로 인해 인삼경작 허가에서 자유화로 변하게 되었음.
- 지난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부산 방문시, 영도다리(현 영도대교) 부근을 순시하던 중 노점 상인들이 땅바닥에서 파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상인들이 인삼이라고 말하였고, 그 이후 「인삼산업법」 제정을 지시하여 그 해 연말, 국가안전보장회의 농림부 특작과에서 자문과 공청회도 없이 「인삼산업법」이 통과되었음.
- 이 때 인삼의 상식과 내용도 잘 모르는 일반 행정관에 의해 제정된 법이 「인삼산업법」인데, 주산지인 금산에 오지도 않음.
 - 고유한 생삼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수삼이라는 이름으로 조작해서 「인삼산업법」을 만들었으니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 「인삼산업법」이 공포될 당시, 수삼이 아니라 생삼이라 말하니 반동분자라 하며 억압하는 말에 혼줄을 당하였으며, 물에서 농사지은 것도 아닌 생삼을 우스꽝스러운 수삼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루속히 다른 이름으로 바뀌야 함.
- 인삼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명칭부터 변경하여 금산이 인삼의 종주지, 집산지로서 역할을 다하여 후대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함.



인삼산업 활성화 방안 -
수출 · 가공 · 제도개선 등



우신산업주식회사
황광보 대표이사

인삼산업 활성화 방안 - 수출 · 가공 · 제도개선 등

황광보 대표이사
우신산업주식회사

□ 가 공

1. 인삼, 홍삼제품 명칭 사용시 기준 설정

인삼(백삼)제품	ginsenoside Rb1+Rg1	0.8~34mg	42.5배
홍삼제품	ginsenoside Rb1+Rg1+Rg3	2.5~34mg	13.6배

- 인 · 홍삼의 명칭 사용시 최소한의 함량기준 설정
- 소비자의 건강, 웰빙에 대한 관심고조
 ⇒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구축의 계기

2. 제품개발

- 세대별 NEED에 적합한 제품개발
 - 지적작업이 많이 요구되는 청년층에 뇌기능 향진과 항피로 효능 제품으로 복용이 용이하게 개발
 - 소비자 입맛에 친화적 접근
- 현지인의 식문화와 관습에 적합한 제품 및 design 개발
(예: 태국, 밀크티 등 단 것을 주로 음용하는 문화로 당뇨에 도움을 주는 제품 개발)

□ 수 출

1. 인삼의 기능성 해당국에 등록

- 유명성과 구전에 의한 해외 홍보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한 기능성 등록으로 홍보 및 수출 증대

- On-Line 쇼핑몰 통한 수출 확대
(중국의 T-Mall, 알리바바, 미국 : 아마존, 월마트 등)
 - aT와 연계한 T-Mall과 아마존 판매 진행중)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필요

□ R&D 및 마케팅

1. 인삼고유의 쓴맛 중화

- 우리는 친숙한 맛과 향이지만 외국인은 접근성이 낮음

2. 의약품과 식품으로 다양한 제품개발

- 중국 Rg3 항암제 시판

3. 연작장애 해소방안 개발

- 재배적지의 부족 및 재배환경 악화추세
- 이동경작에 따른 관리의 문제와 비용증가

4. 종자개발

- 기후변화 및 고품질 원료확보

5. 한류를 통한 홍보

- 한류와 한류스타를 통한 접근성있는 홍보
 - 드라마, 영화
- 비중있는 Documentary 통한 홍보
 - 소비자의 지적호기심 충족과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생노병사의 비밀’ 과 같은 다큐멘터리 활용
- 백종원클라쓰, 뽕숭아학당 등 인기 채널을 통한 지속적 홍보

□ 제도개선

1. 인삼을 수급조절 대상품목으로 편입

- 농가소득 불안정 해소
- 인건비, 자재비, 농약비용과 토지임차료의 상승과 이동경작에 따른 비용과다
- 자연재해에 따른 위험부담 증가 등
- 다년생 작물인 인삼의 생산기반 위축은 고려인삼 종주국의 위상이 무너지고 전통산업이며 선조로부터 물려 받은 문화유산의 붕괴가 우려

2. 「인삼산업법」 개정 (법 제 11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자 단체로 하여금 인삼류를 수매하여 비축, 방출하게 할 수 있다.
 - 할 수 있다 ⇨ 해야 한다
 - 생산자 단체 ⇨ 정부 혹은 정부산하기관(aT 등)
 - 비축, 수매시 연근지정 철폐(6년근 35%, 5년근이하 65%)

3. 「약사법」 개정

- 건삼시장 소멸 및 백작소 위축(「약사법」 시행 이후)
- 무검사 유통금지(소규모 가공업자 소멸)
- 과도한 품질검사수수료(4,680천원 ⇨ 3,365 ⇨ 2,508천원)
2021.10.19. 시행
- 품질검사를 외부위탁에서 인삼검사소가 할 수 있게 장비 및 인력을 지원하여 비용을 줄이면 시장의 활성화 유도
- 「인삼산업법」에 의한 검사를 「약사법」으로 인정

4. 농업관측 품목에 인삼 편입

- 파종, 작황, 가격동향, 수급상황 및 전망자료를 통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 및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줌.
- 농업관측은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인 한·육우 돼지, 육계, 오리 등 축산물과 무, 배추 등을 비롯한 엽근채소 마늘 등 양념채소 과일, 쌀, 콩 등 곡물과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수입 과일까지 관리하고 있음.
- 주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부가가치세 면제 (열처리 원형삼)

- 김치와 물리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는 두부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미가공식품으로 분류하여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음.
- 원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열처리를 한 홍삼, 흑삼, 태극삼 등의 인삼류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음.
- 홍삼(숙삼)을 제조한 고려시대에도 보존기간 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원형을 유지하는 단순 가공품임.
- 고려인삼은 「인삼산업법」에서 우리나라 특산물로 보호육성 품목임.
-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
 - 한미FTA, 한중FTA, 한카나다FTA. R-CEP협정서명('20.11.17) 등으로 세계시장 개방에 따른 저가의 수입산 인삼류 국내반입에 대비

□ 기 타

1. 수삼의 규격화 ⇨ 무게단위로 조정
(예: 특대 ⇨ 5편/750g 혹은 150g +-10g/1뿌리 기계선별(중량) 지원)
2. 선별인원 육성 / 지방자치단체 지원, 수삼센터
3. 수삼 경매제 검토
4. 농약판매 이력제 및 생산 이력제 실시
5. 원료삼 채굴전 검사의무화 (PLS 5년 유예 2023년 12월)
6. 인기채널 홍보(지역문화, 인삼시장 소개, 택배 지원)

금산 약초시장 및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의 정 토 론 회

- 일 시** 2021. 11. 26.(금), 14:00~16:00
- 장 소**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2층 대강당
- 주 최** 충청남도의회
- 참 석** 100명 미만 (도민,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

YouTube 라이브방송, 채널 '충청남도의회' 접속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좌석간 거리두기 등)

- 좌 장** 김복만 의원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 발 제** 김영수 원장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 토 론** 문정우 군수 (금산군)
정낙춘 국장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김현호 소장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강상묵 조합장 (백제금산인삼농협)
정승철 조합장 (금산국제인삼시장조합)
황광보 대표 (우신산업 주식회사)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금산 약초시장 및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의정토론회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